

# 채만식의 단편 소설 “소망”의 분석과 해석

이 대 규\*

## 목 차

- |                |            |
|----------------|------------|
| 1. 서 론         | 2.3 공간과 세계 |
| 2. 작품의 분석과 해석  | 2.4 시 간    |
| 2.1 플롯과 상황의 변화 | 3. 결론      |
| 2.2 인 물        |            |

## 1. 서 론

채만식의 소설 작품에 관한 일반적인 논평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직업없는 지식인과 사회를 비판한다.
- (2) 부정적 인물이 긍정적 인물을 비판하게 하면서, 부정적 인물의 어리석음과 비도덕성을 드러내고 비판한다.
- (3) 작가는 아리어니와 역설을 사용한다.
- (4) 채만식의 소설은 풍자 소설이다.
- (5) 채만식의 소설은 기법이 부족하다. 그의 작품은 플롯의 긴밀성이 부족하여 산만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채만식 소설에 관한 일반적 논평을 개별 작품으로 부터 귀납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 앞서서, 채만식 소설의 논평에

---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자주 사용되는 아이러니, 역설, 풍자의 개념을 명료화하기로 한다.

아이러니에는 여러 하위 개념이 있고, 이러한 하위 개념들을 나타내는 용어들도 다양하다. 여기서는 아이러니의 하위 개념들을 언어적 아이러니, 극적 아이러니, 구조적 아이러니, 플롯의 아이러니, 운명의 아이러니로 분류하고, 그 개념들을 명료화하기로 한다.

첫째 언어적 아이러니는 반대되는 표현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운수가 가장 나쁜 날”을 뜻하고,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은 콩밭 때문에 더욱 가난해진 상황을 뜻한다. 이 점에서 이 두 작품의 제목은 언어적 아이러니이다. 이 경우에 언어적 아이러니는 악화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둘째 “극적 아이러니”라는 용어는 본래 연극을 보거나 연극 속의 어떤 인물이 아는 것을 다른 인물이 모르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서 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소설 작품의 극적 아이러니는 독자나 작품 속의 말하는이나 작품속의 어떤 인물이 아는 것을 다른 인물이 모르는 것이다.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의 끝 부분에서 독자와 수재라는 인물은 콩밭에서 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수재가 금이 나온다고 외칠 때 주동 인물과 그의 아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이 경우의 아이러니는 수재의 거짓됨과 주동 인물의 어리석음, 주동 인물의 헛된 소망과 비참한 파멸을 강조하고, 독자에게 그러한 파멸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게 한다.

셋째 “구조적 아이러니”는 바로 앞에서 말한 극적 아이러니가 한 작품 전체 또는 한 작품의 긴 부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구조적 아이러니는 경험이 없거나 순진하거나 어리석어서 인식 능력이 모자라는 해설자 또는 편견이나 이익에 사로잡혀서 잘못 인식하고 잘못 판단하는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해설자는 오랜 시간과 세월이 지날 때까지 또는 작품이 시작되어서 끝날 때까지, 주동 인물이나 주요 인물의 실체가 무엇인지 해설자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채만식의 “소망”은 작품 전체에 구조적 아이러니가 퍼져 있다.

넷째 플롯의 아이러니는 인물의 동기와, 그 동기 실현을 위한 행동의 결과가 반대가 되는 것이다.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에서 주동 인물은 밭에서 금을

키어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하나, 밭을 파헤치는 동안에 농사를 망치고 파멸한다. 이 작품의 플롯의 아이러니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동기와 어리석음이 빛나는 비참한 파멸을 강조한다.

다섯째 “운명의 아이러니”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사회적 세력이나 신이나 우주의 법칙이 주동 인물에게 헛된 희망을 가지게 하고, 파멸시키는 것이다. 운명의 아이러니는 인간의 운명이 비관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세계관을 반영하며, 이 세계관은 초월적인 우주의 법칙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우주적 아이러니라고도 한다. 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의 주동 인물은 결혼할 여인이 나타나리라는 예언을 듣고, 그 여인과 결합하나, 우주의 법칙에 의하여 계획된 운명에 따라 여인과 이별하고 일생 동안 고립된 삶을 이어간다. 이 점에서 이 작품은 운명의 아이러니를 반영한다.

아이러니는 흔히 반어라고 번역되는데, 반어라는 번역어는 언거적 아이러니의 개념을 매우 적절하게 나타낸다. 역설은 패러독스(paradox)의 번역어이다. 역설은 상식이나 진리에 어긋나는 표현이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사라진 나날은 산 죽음”라는 표현은 역설이다. “산 죽음”은 모순된 표현이나, 이것이 “사라진 나날”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사라진 나날은 되돌아오지 않으므로 죽은 것이지만, 사라진 나날의 경험은 마음에 새겨져 있으므로 살아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와 패러독스는 구별하기 어려워서 혼동되는 일이 많다. 역설은 의미의 폭이 좁고, 문학 작품에서 아이러니만큼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신비평가들은 시의 언어가 패러독스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패러독스는 이 용어의 본래의 의미와 같지 않다.

풍자는 개인이나 사회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서 비웃는 것을 뜻한다. 문학 작품에 채택되는 풍자는 개인, 집단, 사회 체제의 표면과 실재의 차이를 폭로한다. 여기서 표면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슬기롭고 유능하고 정의롭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고, 실재란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위선적이고 비정상적인 개인과 집단의 실제적 특성과 측면이다.

풍자 소설에서 풍자(비판)의 지적 도덕적 기준은 명시되지 않으며, 암시될 뿐이다. 독자는 암시된 풍자의 기준에 공감하며, 풍자의 대상을 비웃고 경

떨하게 된다.

풍자의 주체가(작품속의 말하는 이, 작품속의 한 인물, 작가들이) 풍자의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는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풍자의 대상에 대한 풍자 주체의 여유있는 태도이다.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이나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풍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두 작품은 주동 인물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풍자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에 풍자의 주체는 풍자의 대상에 여유있는 태도를 가지므로, 독자는 풍자의 대상을 가엾이 여기게 된다. 둘째는 풍자의 주체가 지나치게 우월한 위치에서 풍자의 대상을 내려다보는 태도이다. 이 때 풍자의 주체는 풍자의 대상에 심한 반감을 가지며 냉소적이 된다. 셋째는 풍자의 주체가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풍자의 대상과 같은 위치에서 맞서는 태도이다. 이 경우에 풍자는 욕설이 된다. 넷째는 풍자의 주체가 풍자의 대상을 자신보다 훨씬 우월한 힘센 존재로 여기는 태도이다. 이러한 풍자는 독자에게 위기감과 불안감을 일으키며, 큰 재난을 예고하는 묵시록이 된다.

풍자의 기본적인 목적은 비판이지만, 비판은 간접적이다. 풍자는 비판의 수단으로서 풍자의 대상을 우습게 하고 경멸하게 한다. 따라서 풍자는 비판의 대상을 우습게 하고 경멸하게 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풍자의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은 아이러니, 역설, 과장, 축소, 해학, 기지 등이다.

많은 사람들이 채만식의 소설에 아이러니나 역설이 들어 있고, 그의 작품 전체가 풍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채만식 소설의 어느 요소가 왜 아이러니이며 역설인가,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자세히 말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또 그의 소설이 왜 풍자 소설인가, 어떤 종류의 풍자가 사용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풍자하는가, 풍자가 작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명을 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채만식의 단편 소설 “소망”에서 아이러니나 역설이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 2. 작품의 분석과 해석

이 작품의 분석과 해석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전개하고자 한다.

- 2.1 플롯과 상황의 변화
- 2.2 인물
- 2.3 공간과 세계
- 2.4 시간

### 2.1 플롯과 상황의 변화

이 작품은 남편이 정신병에 걸렸다고 믿는 여인이 어느 날 저녁 의사의 아내인 언니에게 긴 이야기를 늘어 놓다가, 언니의 남편이 들어올 때 이야기를 마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작품이 시작되어서 끝날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사건도 없으며, 여인의 인식, 태도, 상황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여인의 수다스럽고 긴 이야기 속에 남편의 비정상성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일인칭 해설자의 이야기 속에 포함된 이 인물 자신과 남편의 배경과, 남편이 작년 가을에 직업을 버리고 오늘 오후까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과정을 시간적 순서로 재구성하고 요약한 후, 사건의 진행에 따라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인칭 해설자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7년전 동경에서 대학에 다니던 남편과 결혼하다.
- (2) 3년 동안 남편 없는 시댁에서 살다.
- (3) 3년후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신문사에 취직하다.
- (4) 5년 후 시댁에서 나와, 현재까지 남편과 함께 2년 동안 살다.
- (5) 남편이 신문 기자 노릇하기 어렵다고 말하다.
- (6) 작년 초가을 남편이 신문사에 사직원을 내다.
- (7) 신문사에서 남편에게 나오라고 여러 번 재촉하다.
- (8) 남편이 신문사의 재촉을 거절하다.
- (9) 남편이 건너방에 누워서, 책과 신문과 잡지 읽기에 전념하다.
- (10) 내가 말을 걸면, 웅변조로 나를 몰아세우다.
- (11) 남편이 가끔 화동 서씨를 찾아 가다.

- (12) 유월 그믐께 남편이 쌀가게에 가서, 봄부터 밀린 외상값을 갚겠다고 거짓말하다.
- (13) 그 후 남편은 쌀가게 앞을 피하여, 화동 서씨 집에 가다.
- (14) 이른 여름에 친정 어머니가 그곳 해변에 와서 쉬라고 편지하다.
- (15) 내가 남편에게 친정에 가자고 조르다.
- (16) 남편이 서울을 떠날 수 없다고 거절하다.
- (17) 내가 남편에게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묻다.
- (18) 남편은 내가 하등 동물이어서 그 이유를 말하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다.
- (19) 남편은 지금 세상이 무너진다고, 또 세상이 옛이야기 같다고 말하다.
- (20) 얼마 전 내가 남편에게 아들 태호를 데리고, 삼청동 수영장에 가서 몸을 식히고, 시원한 솔밭에서 독서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말하다.
- (21) 남편이 나에게 속물이라고 욕하며, 속물들과 돼지처럼 지낼 수 없다고 말하다.
- (22) 오늘(말복) 정오에 내가 남편에게 안양에 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오자고 말하다.
- (23) 남편은 나의 재미를 위해서 자신이 고통 받을 수 없다고 말하다.
- (24) 내가 남편에게 아내와 자식을 하루만 즐겁게 해 달라고 말하다.
- (25) 남편은 그것이 친하 일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니, 할 수 없다고 말하다.
- (26) 나는 죽어 버리겠다고 말하다.
- (27) 남편은 인간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말이 전설같다고 말하다.
- (28) 나는 남편이 성가시지 않게 죽겠다고 말하다.
- (29) 남편은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개죽음이라고 말하다. 남편은 오늘날 미국이 일차 세계 전쟁 때 2천만 명의 죽음의 대가로 번영한다고 말하다.
- (30) 내가 남편에게 무더운 건너방에서 나와, 시원한 마루나 안방에 누우라고 말하다.
- (31) 남편이 나에게 하등 동물이라고 욕하며, 자기를 괴롭히는 더위와 싸운다고 말하다.
- (32) 내가 닭을 사 오려고 문 밖으로 나서다.
- (33) 남편이 나에게 쌀가게 주인에게 외상값을 팔월 그믐께 갚겠다고 말하라고 하다.
- (34) 내가 쌀가게 주인에게 남편의 말을 전하다.
- (35) 내가 남대문 시장에서 닭을 사 가지고, 한 시에 돌아오다.
- (36) 집이 비어서, 남편이 화동 서씨에게 간 것으로 짐작하다.
- (37) 내가 닭과 칼국수를 삶다.
- (38) 남편이 겨울 양복과 겨울 모자를 쓰고 들어오다.
- (39) 내가 남편에게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묻다.
- (40) 남편이 대답하다.
- (40.1) 종로에서 당당하고 통쾌하게 서다.
- (40.2) 저속한 곤충들이 웃거나 멍하게 쳐다보다.

- (40.3) 쌀가게 앞을 유쾌하게 지나며, 해방감을 느끼다.
- (41) 남편이 닭국수 한 그릇 반을 먹다.
- (42) 언니가 나에게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다.
- (43) 언니의 남편이(형부가) 들어오다.
- (44) 나는 남편의 정신병 치료에 관하여 형부와 의논하려고 하다.

사건 (1)과 (2)는 남편과 분리된 불안정한 상황이나, 사건 (3)과 (4)의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삶을 위한 예비 상황이다. 해설자의 상황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4)이다.

사건 (7)~(8)은 남편의 비정상적 행동이 시작되는 단계를 보인다. 사건 (9)~(37)은 직업을 버린 후 계속하여 온 남편의 비정상적 행동, 생각, 태도를 보인다. 아울러 사건 (7)에서 (37)까지의 해설자의 정신적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해설자는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사건 (38)~(44)는 남편의 비정상성의 정도가 더 커져서, 해설자의 심리적 상황이 더 악화됨을 보인다.

## 2.2 인물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은 이야기를 하는 일인칭 해설자, 이야기를 듣는 해설자의 언니, 해설자의 이야기 속의 인물인 해설자의 남편이다. 이 작품의 주동 인물은, 해설자가 아니고, 해설자에 의하여 이야기되는 해설자의 남편이다. 해설자는 인식 능력이 모자라므로, 주동 인물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해설자에 의해서 주동 인물의 동기, 생각, 행동, 태도가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된다. 주동 인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행동, 생각, 태도에 관한 개요를 작성하고, 이 인물의 참 모습을 드러내기로 한다.

- (1) 행동 (가)
  - (1.1) 뜨거운 방에 누워 움직이지 않다. 자기를 괴롭히는 더위와 싸운다고 말한다. 서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다.
  - (1.2) 쌀가게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곳을 피하여 다니다.
  - (1.3)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종로에 가다.
  - (1.4) 겨울옷을 입고 쌀가게 앞을 지날 때 통쾌하였다고 말한다.
- (2) 행동 (나)
  - (2.1) 책, 신문, 잡지를 열심히 읽다.
  - (2.2) 가끔 화동 서씨를 찾아가다.

(2.3) 닭국수 한 그릇 반을 먹다.

(3) 생각과 태도

(3.1) 가족을 즐겁게 하는 것은 세상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3.2) 세상이 멸망해 간다. 세상이 옛이야기나 전설 같다.

(3.3) 오늘날의 세상은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3.4)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은 개죽음이다. 일차 세계 전쟁에 참가한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그 결과로 미국이 번영한다.

(3.5) 아내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을 하등 동물, 더러운 벌레, 속물(물질적 만족만을 찾는 인간)이라고 멸시하다.

남편의 “행동 집합 (1)”만을 가지고 추리하면, 그 정신 상태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추리하면, “행동 집합 (2)”와 “생각과 태도 (3)”도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행동 집합 (2)”와 “생각과 태도 (3)”을 깊이 해석하면, 남편은 정상적이며,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다.

남편은 1930년대의 세계 강대국들이 독재 체제를 강화하거나, 약소국을 침략하거나, 전쟁 준비에 몰두하는 국제 정세를 알고 있고, 따라서 또한 차래의 세계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큰 규모의 전쟁 목적을 추구하는 일본을 포함한 강대국들이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며, 사람의 목숨을 뺏는 전쟁을 치러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려 한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세상이, 특히 한국이 망해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계적 상황을 모르고 하루하루의 개인적 만족이나 가족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개인들을 동물, 벌레, 속물이라고 경멸하는 것이다.

남편이 세상을 도모한다는 것은, 국제적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확대될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책, 신문, 잡지를 읽는 것을 뜻한다.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화동의 서씨도 남편과 같은 높은 수준의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해석된다. (2.3)은 남편의 식욕이 왕성한 것으로 보아, 그의 몸과 마음이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남편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위장한다. 뜨거운 방에서 꿈쩍하지 않는 것, 쌀가게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무더운 한낮에 겨울옷을 입고 여러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은 이 인물이 자신을 정신 병자로 위장하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하여 그는 타인의 감시를 받지 않고, 독서에 전념하고, 화동의 서씨를 만난다. 그가 쌀가게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가게 앞을 피해서 다른 길로 다닐 구실을 만들고, 그렇게 하여 화동 서씨를 만나러 다니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혹을 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해설자(주동 인물의 아내)는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인물이다. 인식과 판단 능력이 모자라는 인물이 그러한 능력이 뛰어난 남편의 정신 상태를 정신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평범한 여인인 해설자의 희망은 하루하루의 즐겁고 풍요한 가정 생활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남편의 직장 포기로 단념한다. 그녀의 현재의 기대는 정신이 비정상적인 남편이 정상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남편의 비정상성의 정도가 더 악화되어, 더 초조하고 불안하다. 그녀가 쉽없이 수다를 떠는 것은 그녀의 초조와 불안을 암시한다.

### 2.3 공간과 세계

이 작품의 중심 공간은 가까운 곳에 중앙학교, 삼청동, 화동이 있는 주택가 한옥의 서향 “건너방”이다. 이 방의 서쪽에 앞문이 있고, 처마끝에 함석 채양이 붙어 있다. 이곳은 바람이 통하지 않고, 정오가 지나면 불벌이 쪼이고, 함석 채양이 더운 기운을 내뿜는다. 신체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곳이고, 심리적으로도 답답한 곳이다. 이 공간은 남편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한 해설자의 정신 상태를 암시한다. 작품 전체의 의미 차원에서 이 공간은 확대되는 전쟁과 대량 살상으로 몰고 가는 정치적 억압과 이에 맞서려는 남편의 정의롭고 고독한 의지를 상징한다.

한옥의 중심적 공간 주위와 근처에는 쌀가게, 중앙학교, 수영장과 솔밭이 있는 삼청동, 서씨가 사는 화동이 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남편이 근무하던 신문사, 남대문 시장, 언니가 사는 집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한 부분이다. 이곳은 몇 년 전 남편이 공부하던 동경과 더불어, 1930년대 후반의 현대적 도시 공간이다. 이 공간은 한편으로는 평범한 속물적 개인들이 물질적 목적을 추구하기에 바쁜 곳이고,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 체제가 세상을 멸망시킬 음모를 꾸미는 곳이다. 남편이 이 공간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천하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제국주의의 불길한 음모와 세계 정세를 탐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공간의 외부에 수박밭과 시냇물이 있는 안양, 막내 시동생이 팔려고 내놓은 금광, 해설자의 친정이 있는 바닷가 마을이 있다. 중심 공간 주위의 삼청동과 외부 공간의 안양과 친정은 모두 물이 있는 시원하고 즐거운 공간이고, 해설자가 무덤고 답답한 현재의 삶의 공간으로부터 도피하여 쉬고 싶은 공간이다. 그러나 남편은 절박한 시대에 그곳으로 도피하기를 거부한다. 이것은 시대적 의무와 고통을 감수하려는 남편의 태도를 암시한다. 또 이러한 태도는 남편이 시대의 선각자임을 의미한다.

다른 편으로 시대, 금광, 친정은 해설자의 가정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계층에 속하며, 따라서 남편이 직장을 포기한 것이 이 가정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으며, 남편이 비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의 세계는 보통 사람에게서는 평온하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나, 남편에게는 불길한 징조가 감싸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중심 공간인 그의 방에 의해서 암시되고, 해설자의 초조하고 불안한 어조에 의해서 암시된다.

이 작품의 현재의 공간은 해설자의 언니의 주거 공간이고 언니 남편의 직장인 병원 안이다. 이 공간은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인식 능력이 모자라는 현대적 개인들의 비정상적(병적) 상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2.4 시 간

이 작품의 시간은 (ㄱ) 현재, (ㄴ) 가까운 과거, (ㄷ) 먼 과거, (ㄹ) 미래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ㄱ) 이 작품의 현재의 시간은 1930년대 후반의 어느 여름 말복날(8월 10일 경)의 저녁이다. 현재는 해설자가 수다스럽게 늘어놓는 이야기와 여기에 짝맞하게 반응하는 해설자의 언니의 말이(이것은 작품에 생략되어 있다) 언니의 남편의 귀가로 중단될 때까지 계속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의 길이는 독자가 이 작품을 느린 속도로 다 읽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ㄴ) 가까운 과거는 현재와 같은 날 한낮부터 오후까지이다. 가까운 과거의 사건은, 해설자의 행동과 남편의 행동으로 갈라졌다가 합쳐진다.

- (1) 해설자(아내) : 남대문 시장에서 닭을 사 가지고 와서, 닭국수를 만든다.
- (2) 남편 : 겨울옷을 입고 종로에 갔다가 돌아오다.
- (3) 해설자와 남편 : 함께 점심을 먹다.

(ㄷ) 먼 과거는 7년 전 해설자가 동경에서 대학에 다니던 남편과 결혼한 후 최근까지의 시간이다. 먼 과거의 사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기자 노릇을 그만두고,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먼 과거의 사건은 해설자를 걱정하게 하고, 가까운 과거의 사건은 해설자의 불안을 더욱 크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

현재의 해설자의 기본적 동기는 남편의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부차적 동기는 첫째 남편의 질병에 관하여 의사인 형부와 상의하는 것이고, 둘째 형부의 도움으로 남편이 신경과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다.

(ㄹ) 해설자의 기본적 동기와 부차적 동기의 실현을 위한 행동은 이 작품이 다루지 않는 미래의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언니의 태도와 남편의 태도로 미루어 보면, 해설자의 기대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시간에 해설자의 불안, 초조, 절박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자와 그네의 언니의 대화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해설자의 언니의 대화는 생략되어 있어서, 이 작품은 해설자의 혼자말(독백)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 이 작품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서 혼자말 형식의 대화의 예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첫 1) ……
- (첫 2) 마음이 뒤숭숭해서, 밥 먹고 싶지 않아.
- (첫 3) ……
- (첫 4) 더운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 (첫 5) 아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첫 6) ……
- (첫 7) 냉면도 싫어. 아무 것도 먹고 싶지 않아. 과일즙이나 한 대접 쉼.

·  
·  
·

(끝 6) ……

(끝 5) 옳아, 언니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짐작했었지. 이전 과천에서 뽕  
맞고 서울에서 눈 흘기는 거지. 나가서 한바탕할까?

(끝 4) 그러나 저러나 그이 신경이 아주 못 쓰게 고장났으면 어떻게 하  
나?

(끝 3) ……

(끝 2) 내가 그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게 아니야.

(끝 1) 마침 형부가 들어오시는군. 상의를 좀 해 보구.

첫 1, 첫 3, 첫 6, 끝 6, 끝 3은 해설자의 언니가 해설자에게 하는 말이 생략된  
것을 표시한 것이다. 이 생략된 말은 이 말에 대한 해설자의 반응—첫 2, 첫  
4, 첫 7, 끝 5, 끝 2로 독자가 짐작하여 알 수 있다. 이렇게 순서없이 늘어놓은  
긴 대화의 형식을 가진 이 작품의 (ㄱ) 현재의 대화 속에 (ㄴ) 가까운 과거와  
(ㄷ) 먼 과거의 사건들이 무질서하게 나열된다. 즉 앞뒤가 빠진 사건들에  
또 다른 앞뒤가 끊어진 사건들이 시간적 순서와 관계없이 이어진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의 시간적 틀은 이야기의 시간과 사건의 시간 사이의 어긋남,  
각 사건들 사이의 시간의 어긋남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건들이 해설자  
에게 영향을 준 느낌들—초조, 불안, 당황—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 3. 결론

(1) “소망”은 직업없는 지식인의 무능과 가난을 다루는 작품에 속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작품 속의 인물들은 교육받은 지식인들이지만, 이  
작품은 지식인의 무능과 가난을 다루지는 않는다. 해설자의 남편은 현재  
직업이 없으나, 무능하여 직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직업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해설자의 가족이 가난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비록 쌀가게에 20원  
외상빚이 있으나, 그네의 남편은 여유가 없어서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여유가  
없어서 그 빚을 갚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네의 남편은 쌀가게 앞을 피하여

화동 서씨 집을 찾아 다닐 구실을 만들려고 일부러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이다. 해설자의 가족은 퇴직금 300원, 시댁에서 보낸 200원, 시동생이 가끔 보내는 100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해설자의 친정도 해설자를 도울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 그리고 시동생이 앞으로 금광을 몇 만원에 팔면, 형을 돕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해설자에게는 버젓한 주택이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이 직업없는 지식인의 무능과 가난을 다룬다는 논평은 이 작품의 내용과 모순된다.

(2) 채만식이 아이러니와 역설을 사용한다는 일반적 논평은 올바른 지적이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한 지적만으로는 이 작품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 이 작품에는 언어적 아이러니, 극적 아이러니, 구조적 아이러니, 플롯의 아이러니, 역설이 사용되었다.

첫째 언어적 아이러니는 이 작품의 제목과 해설자의 말 속에 나타난다. 이 작품의 제목으로 채택된 “소망”이라는 말은 “젊은 나이에 미친 남편”을 뜻한다. 그러나 해설자의 남편은 미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보다 뛰어난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과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소망”은 이 말의 본래의 의미와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뜻을 강조하는 언어적 아이러니이다. 그 뿐 아니라, “소망”은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한다. 즉 이 말은 해설자의 남편이 미친 것이 아니라, 유럽 강대국보다 늦게 강대국이 된 젊은 강대국 일본의 전쟁 정책이 미친 것처럼 어리석다는 것을 뜻한다. 이 외에 이 작품의 제목은 “소망”의 동의어로서의 소망(희망) 즉 일본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기대를 암시한다. 그러나 후자의 두 의미는 아이러니가 아니라, 비유와 말장난에 의한 강력한 욕설이다. 따라서 후자의 두 의미는 풍자의 내용이 된다.

둘째 극적 아이러니는 이 작품의 곳곳에 퍼져서, 구조적 아이러니를 이룬다. 이미 2.2의 분석에서 밝힌 아이러니는 극적 아이러니이다. 셋째 이 작품에는 플롯의 아이러니가 있다. 해설자는 남편의 정신 질환이 더욱 심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며 그 불안이 더 늘어나고 있다. 해설자의 동기는 남편의 정신 질환을 치료하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만, 이 작품의 끝은 해설자의 불안이 지속되고 더욱 커지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해설자의 동기 실현을 위한 노력은 그녀의 동기와 반대의

결과를 가져 오므로, 이 작품의 플롯은 그 자체가 아이러니이다. 플롯의 아이러니는 해설자의 남편이 예견하는 곧 닥쳐올 세상의 엄청난 재난을 독자가 예감하고 불안과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기능을 한다.

넷째 이 작품에서 역설은 남편의 행위로 나타난다. 남편이 더운 여름날 더운 방에 눕거나 겨울옷을 입는 것은 정상인에게 모순되는 행위이다. 작가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믿는 세상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전달한다. 채만식 소설의 연구자들이 그의 작품에 역설이 사용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역설의 개념을 바르게 알고, 역설을 그의 작품에서 찾아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를 역설로 혼동하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채만식은 부정적 인물이 긍정적 인물을 비판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인물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비판한다는 논평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러한 논평은 이 작품속의 인물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분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긍정적 인물 : 해설자의 남편

부정적 인물 : 해설자

해설자의 남편은 풍자의 주체이고, 인관과 사회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능력과 도덕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 기준에 의하여 개인과 사회체제를 비판한다. 풍자 주체의 기준이 작가가 말하려는 중요한 의미이고, 독자가 공감하는 기준이라면, 풍자의 주체인 해설자의 남편은 긍정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해설자는 남편이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풍자의 주체의 관점에서 부정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에게는 해설자가 비판되어야 할 부정적 인물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독자에게는 해설자가 공감적 인물이다. 비록 해설자가 그녀의 남편과 같은 수준 높은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가지지는 못하였으나, 평범한 여인들이 공통적으로 소망하는 가정의 행복과 남편의 건강을 바라며,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또 부정적 인물이 긍정적 인물을 비판한다는 것도 올바른 논평이 아니다. 해설자는 남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기 때문이다. “정신 질환”이라는 말이 어리석은 행위나 비도덕적 행위를 비유적으로 가리킬 경우에 이 말은 비난과 비판이 된다. 그러나 해설자가 남편이 정신 질환에 걸렸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비유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 인물이 긍정적 인물을 비판한다는 논평은 염려와 비판을 혼동하는 것이며, 이 작품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부정적 인물이 긍정적 인물을 비판하지 않고, 긍정적 인물(해설자의 남편)이 부정적 개인과 부정적 집단(사회 체제의 지배 세력)을 비판한다. 따라서 부정적 인물이 긍정적 인물을 비판한다는 논평은 이 작품을 제대로 읽지 않고 내린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채만식 소설이 풍자 소설이라는 것은 그의 작품들이 발표되던 당시부터 지적된 것이다. 이 말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이 작품의 의미를 드러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 개별 작품의 풍자의 주체가 무엇을 무슨 기준에 의해서 비판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소망”의 풍자 주체(해설자의 남편)의 비판 대상, 비판 대상에 관한 인식, 비판의 기준이나 이유, 풍자 주체의 의지와 선택한 행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작품에서 풍자의 주체가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첫째 미국(아메리카 녀석들)이고, 둘째 그의 아내, 처형, 처형의 남편을 비롯한 모든 개인들이다. 그가 미국을 비난하는 이유는 자체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젊은이 2천만 명이 죽은 일차 세계 전쟁에 참가한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미국을 비난하던 일본의 군국주의 지배 체제이다. 작가는 풍자의 주체가 젊은이 2천만 명이 죽은 일차 세계 전쟁의 결과로 미국이 번영한다고 욕설하게 하면서, 한국을 점령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그보다 더 규모가 큰 전쟁을 준비하는 일본의 정치 세력을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풍자의 주체는 세상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 세상이 통째로 사개가 벌어지는 판이다.

(나) 인간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은 옛이야기나(고담이나) 전설같다.

(가)와 (나)는 풍자 주체의 세상의 상황에 관한 인식을 암시한다. (가)는 현재 진행 중인 강대국의 식민지 착취, 약소국 침략, 강대국 사이의 전쟁으로 무서운 세상의 파멸이 오고 있음을 암시한다. (나)의 “옛이야기나 전설같은 세상”은 인간의 목숨이 소중하게 여겨지던 과거의 세상을 뜻한다. 이것은 현재의 세상이 인간의 생명을 전쟁의 무기로 여기는 비정상적이고 악독한 세상이라는 비판을 함축한다. 이것은 이 작품이 창작되던 1930년대 후반의 작가 자신이 인식한 세상이다. 당시의 일본 군국주의 세력은 언론이 일본의 만주와 중국 본토 침략을 정당화하고, 침략 전쟁에 한국인이 물적자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부추기도록 강요하였다.

풍자의 주체는 한국의 젊은이가 일본의 침략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다)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은 개죽음이다.

(다)는 “당신, 성가시지 않게 내가 죽겠다”고 대드는 해설자(풍자 주체의 아내)에게 탄전을 피우며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쟁에 한국의 젊은이가 참가하는 것이 뜻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식민지 억압과 침략 전쟁에 반항하는 풍자 주체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난다.

(라) 눈동자가 옮겨 박힌 놈은 이 짓(신문 기자 노릇)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첫 행위는 “신문사를 그만 두는 일”이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일본 정치의 잔인성과 비도덕성을 폭로하고 비판할 뿐 아니라, 여기에 동조하거나 이러한 사실에 무지한 개인들을 비판한다. 그는 아내와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욕설을 퍼붓는다.

(마) 속불, 하등 동물, 속충, 돼지

위의 말들은 앞날에 닥칠 위협을 인식하지도 대비하지도 못하고, 하루하

투의 즐거움이나 물질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개인들—아내, 아내의 언니와 남편(처형과 동서), 아내가 그에게 만나거나 사귀기를 요청하는 친구나 사람, 겨울옷을 입은 그를 비웃는 종로의 행인들—에게 퍼붓는 욕설이다.

이어서 풍자의 주체가 선택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바) 천하사를 도모하다.

(사) 나를 묶는 더위와 싸운다.

(바)는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ㄱ) 강대국들과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 보고, (ㄴ)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ㄷ) 침략 전쟁에 동조하지 말 것을 주장하겠다는 뜻이다. (ㄱ)은 그가 서울을 떠나지 않고 책과 신문과 잡지 읽기에 열중하는 것으로, (ㄴ)은 더운 날 더운 방에 처박혀 있거나 겨울 옷을 입고 종로에 나가는 것으로 (계절과 반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세상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ㄷ)은 “남을 위해 죽는 것이 개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사)의 “나를 묶는 더위”는 표면적으로 여름날의 더위를 의미하지만, 속으로는 “개인을 억압하며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정치 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는 (바)의 “천하사를 도모하는 일”의 일부이거나 그 수단이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지배 체제와 지배 체제의 영향을 받는 개인들을 각각 다른 이유와 다른 방법으로 풍자한다. 풍자의 주체는 지배 체제를 자신보다 훨씬 우월한 힘센 존재로 여긴다. 이와 반대로 개인들에 대하여 풍자의 주체는 우월한 위치에서 내려다본다. 풍자의 주체는 지배 체제에 대하여 공포감을 가진다. 그래서 강력한 증오심과 저항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지배 체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비정상적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숨긴다. 그러나 개인들에 대해서는 심한 반감을 드러내놓고 직접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냉소적 태도를 취한다. 아내의 평범한 요구를 들어 주지 않고, “가족을 즐겁게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내뱉는 것은 냉소적 태도를 반영한다.

이 작품 전체를 감싸는 위기감과 불안감은 일차적으로 남편의 정신 질환이 심해져 간다고 믿는 해설자의 마음으로부터 나오지만, 이와 같은 개인적

수준의 위기감과 불안감은 세상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지배 체제가 몰고 올 재난의 조짐과 상호 작용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위기감과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것이 이 작품의 효과이다.

(5) 끝으로 채만식의 작품은 플롯의 긴밀성이 부족하여 산만하며, 이 점에서 이 작가는 기법이 부족하다는 논평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주동인물이 이성과의 결합이나 부모 찾기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획득이나 복수와 같은 뚜렷한 동기를 가지는 소설의 플롯은 기본적 동기 실현의 수단이 되는 여러 부차적 동기 실현의 실패와 성공이 연속되면서 절정을 이루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소설은 플롯이 원인-결과 관계를 이루는 사건들로 구성되므로, 사건들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다. 작품의 목적이 긴장감을 일으키고 긴장감으로부터 해방되는데서 독자에게 만족을 주려는 소설은 플롯의 긴밀성이 필요할 것이다.

채만식 소설은 대부분 풍자 소설이므로, 그의 소설의 구조는 풍자의 목적에 기여하도록 짜여진다. 그는 기법이 부족하여 플롯을 긴밀하게 조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는 그의 소설의 플롯을 긴밀하게 조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채만식은 “소망”에서 소설 속의 상상적 사실이 현실 세계의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사실주의 소설의 기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자가 현실 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는 유일한 수단은 경험 주체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듣거나 엿듣는 것뿐이다.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인칭 해설자의 이야기로 짜여진다. 남편 때문에 애태우다가 접먹고 불안에 떠는 해설자는 현실 세계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실제의 인간이 무질서하게 수다를 떠는 방식으로 떠벌인다. 이 소설의 산만하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구조는 작가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이 기법을 당시의 모더니즘 기법에서 빌어 와서, “소망”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채만식 소설의 플롯이 산만하므로, 그가 기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채만식 소설의 해석 능력 부족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봉균, 이용남, 한상무, 한국 현대 작가론, 민지사, 1984.
- 김윤식과 김현, 한국 현대 문학사, 민음사, 1976.
-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0.
- 김홍기, 채만식 소설의 연구, 연세 대학교 문학 박사 학위 논문, 1990.
- 김화영, 소설이란 무엇인가, 문학 사상사, 1986.
- 노재찬 외, 한국 현대 작가 작품론, 제일문화사, 1990.
- 우한용, 채만식 소설 담론의 시학, 개문사, 1992.
- 이재선과 조동일, 한국 현대 소설 작품론, 도서출판 문장, 1984.
- 아브람스, 문학 용어 사전, 최상규 옮김, 대방 출판사, 1985.
- 멘델로우, 시간과 소설, 최상규 옮김, 대방 출판사, 1983.
- C. Brooks and R.P. Warren, Understanding Fiction, New York : Meredith, 1971.
- R. Stanton, An Introduction to Fic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 S. H. Olsen, The Structure of Literary Understanding, Cambridge : Cambridge Univ., 1978.